

마흔 번째 절의 숨겨진 역사 - 서른한 번째

에스겔 제12호

Jeff Pippenger

2026-09-20

이전 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단으로 끝을 맺었다. "313년의 조약 결혼은 교황권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들 가운데 으뜸 되는 왕, 곧 프랑스의 두 뿔 가진 권세로 예표된 두 뿔 가진 권세인 미국과 맺는 최종적인 조약 결혼을 나타낸다. 496년 클로비스로 시작되어 마침내 533년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과 538년 교황권의 즉위로 이르게 된 역사는, 1989년으로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역사를 나타낸다."

로널드 레이건은 496년의 클로비스에 의해 예표되었고, 도널드 트럼프는 533년의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예표된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은 538년에 교황권이 왕좌에 오른 때보다 5년 앞서 있었고, 밀라노 칙령은 321년의 첫 일요일 법령보다 8년 앞서 있었다. 그 칙령과 칙서는 모두 일요일 법령에 선행하는 이정표로 일치한다.

레이건

1870년 이탈리아 군대가 로마를 점령하였다(1870년 9월 20일). 교황령은 영토 국가로서의 존립을 멈추었고, 교황 비오 9세는 "바티칸의 포로"가 되었다. 주권 국가로 인정되는 교황의 영토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자, 미국은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세속적 통치자로서의 교황과 공식 외교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1951년 10월,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마크 W. 클라크 장군을 주바티칸 미국 대사로 지명하였다. 이 임명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한 많은 개신교 교회들과 단체들로부터 곧 강한 반대가 일어났다. 1952년 1월, 클라크 장군은 자신의 지명을 철회하였다.

1984년 1월 10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미국과 교황청 사이에 완전한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공식 합의하였다. 1984년 4월 9일, 윌리엄 A. 월슨(이미 레이건의 개인 대표로 봉직하고 있었던)이 신임장을 제출하고 교황청 주재 미국의 초대 대사가 되었다.

1951년부터 1984년에 이르는 삼십삼 년 동안 개신교가 가톨릭에 대항하던 저항은 소멸되었다. 496년에 클로비스와 함께 교황권을 위하여 섰던 그 "병기들"은 1984년의 레이건으로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를 예표한다. 클로비스는 교황권이 다시 권세 가운데 일어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종교(이교주의)가 제거되는 것을 나타냈으며, 1984년에 이르러서는 교황권의 부상에 대한 개신교의 저항이 제거되었다. "매일의 것" (이교주의)은 제거되었고, 바울은 이교주의가 교황권에 대하여 보이던 그 저항이 제거되는 일을 "배도"라고 묘사한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역사로 표상된 타협의 상징적 교회는, 한 교회가 스스로 타협하고 배도하게 된 한 시기를 나타냈다. 이전에 교황권 세력의 침투를 억제하였던 '508'로 표상된 종교는 미국 내 개신교도들의 배도를 예표하였다. 레이건은

클로비스로 표상되었다. 496년에 클로비스는 자신의 “권세”를 교황권에 넘겨주었으며, 이로써 레이건 시대에 성취된 “거룩하지 못한 동맹”을 예표하였다. 또한 클로비스는 508년에 “매일”이 제거되는 일을 표상하였다. 508은 1984년을 예표하였다.

“이교주의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이러한 타협은 예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높이는 자로 예고된 ‘죄의 사람’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거대한 거짓 종교의 체계는 사탄의 권세가 빚어낸 걸작이며,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스스로 보좌에 앉고자 한 그의 시도의 기념비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50.

레이건은 1983년 연설에서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유명하게 규정했으며,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심대한 도덕적·영적 위협으로 여겼다. 그와 요한 바오로 2세는 소련 공산주의에 맞서 긴밀한 개인적·정치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였다. 두 사람 모두 이 투쟁을 도덕적 차원에서, 나아가 섭리적 차원에서까지 보았으며, 레이건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신적 계획”에 대해 사적으로 언급하였다. 레이건은 파티마 발현(“러시아가 자신의 오류들을 퍼뜨릴 것”이라는 경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두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두 사람 모두 1981년에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다)이 공산주의의 패배와 관련된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논의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레이건은 그 창립 교부들이 가톨릭의 교황이 곧 적그리스도라고 직접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 교단에서 성장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초기 지도자였던 알렉산더 캠벨은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반복해서 지목하였다. 그는 토론과 저술에서,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죄의 사람이 모두 로마의 교황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동일시를 공개 토론들에서 사용하였는데(1837년에 가톨릭 주교 존 B. 퍼셀과 벌인 토론을 포함하여) 그랬다. 바턴 W. 스톤은 교황의 통치를 참된 적그리스도이자 “죄의 사람”이라고 언급하였다. 월터 스콧(이 운동의 또 다른 초기 복음 전도자)은 죄의 사람, 곧 로마의 교황이 그리스도교회 안에서 일어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것이라고 썼다.

레이건의 어머니 넬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단의 독실한 신자였으며, 그의 어린 시절에 주된 종교적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레이건은 11세 때 일리노이주 딕슨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십대 시절 그곳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일도 포함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단과 제휴된 유레카 칼리지에 다녔다.

“말씀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겪고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히 스스로를 적그리스도의 편에 두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전혀 없다.” Kress Collection, 105.

레이건은 클로비스와 또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타협으로 예표되었다. 레이건은 또한 1989년 끝의 때 이래 마지막 여덟 대통령 가운데 첫 번째였다. 마지막 여덟 대통령

가운데 첫 번째로서 그는, 레이건과 같이 교황권의 참된 목적들과 교황권이 누구인지를 심히 혼동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를 예표한다.

두 사람이 서로 뜻이 합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함께 걸을 수 있겠는가? 아모스 3:3.

다니엘 11장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조약 결혼은 1989년 끝의 때에 시작하여 도널드 트럼프의 역사에서 마쳐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오늘날 미국에서 교회의 제도와 관습에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있어서, 개신교도들은 교황주의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교황권이 구세계에서 상실한 그 패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다시 얻도록 문을 열어 주고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73.

313년의 혼인 조약과 밀라노 칙령은 533년의 역사와 서로 부합하며, 533년의 유스티니아누스 칙령은 다시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행정부에 의해 시행될 것인데, 그 행정부는 더 이상 교황권을 기독교 제도로 규정하는 일이, 좋게 말해도 형용모순이며, 나쁘게 말하면 치명적인 망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교회와 국가

기원전 457년에 아닥사스다의 세 번째 칙령은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 모두에 대해 국가적 주권을 회복시켰다.

그대 에스라여, 그대의 손에 있는 그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그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모든 자를 재판할 치리자들과 재판관들을 세우라.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가르치라. 누구든지 그대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속히 판결을 집행하되, 혹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혹 추방하거나, 혹 재산을 몰수하거나, 혹 옥에 가둘지니라. 에스라 7:25, 26.

세 번째 칙령은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 둘 다에 대하여 심판과 형벌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칙령은 그리스도께서 홀연히 그의 성전에 임하신 1844년 10월 22일에 종결된 이천삼백 년 예언의 시작을 이루었다. 또한 그것은 주전 217년 라피아 전투와 주전 200년 파니움 전투 사이의 역사 속에서, 주전 207년에 끝난 이백오십 년 예언의 시작을 이루었다. 주전 457년에 시민적 주권과 종교적 주권이 모두 회복된 사실은, 두 개의 오메가 성취를 갖는 이중적 알파를 제시한다. 그 두 오메가 성취는 모두 닫힌 문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개신교의 뿔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화주의의 뿔을 위한 것이다.

이천삼백 년의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나타내었고, 이백오십 년의 예언은 왕의 법률들을 나타내었다. 이 두 예언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 위에 있는 개신교주의의 뿔과 공화주의의 뿔을 확인해 준다. 땅의 짐승의 공화주의의 뿔은 다니엘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라피아와 파니움 사이의 십칠 년 기간은 기원전 457년의 셋째 칙령에 관한 이중 예언에서 나온 한 뿔에 의해 교차된다. 이 두 겹의 예언은 마지막 언약 백성의 심판뿐 아니라, 그 언약 백성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의 심판도 또한 밝혀 준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또한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창세기 15:13, 14.

에스겔서에서 1844년 10월 22일은 기원전 573년 10월 22일로 예표된다. 한 날짜는 조사심판의 시작을 가리키고, 다른 날짜는 심판 과정의 시작과 결말 양쪽에서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짐을 가리킨다. 두 날짜는 서로 일치하며, 둘 다 닫힌 문을 가리킨다. 1844년은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옮겨 가심에 따라 성소의 문이 닫히는 것을 나타낸다. 기원전 573년은 구속받은 죄의 종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들이 거할 새 땅이 주어지는 때, 곧 인간의 은혜의 기간의 마침을 가리킨다.

만일 그가 이 해들 안에 속량되지 못하였으면, 희년에는 그가 나갈 것이니, 그와 함께 그의 자녀들도 그리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는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종들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5:54, 55.

두 번의 10월 22일은 모두 임박한 일요일 법의 닫힌 문을 나타낸다. 재림교에 주어진 은혜의 기간은 1844년에 시작되어 곧 닥쳐올 일요일 법으로 끝나며, 미국에 주어진 은혜의 기간 역시 곧 닥쳐올 일요일 법으로 끝난다. 이 두 종결은 모두 2,300년과 250년이라는 두 증인과 더불어 10월 22일에 일치한다.

라피아와 파니움 사이의 역사에서 끝나는 이백오십 년은 그 두 전투의 기간을 두 개의 상징적 숫자로 나누며, 그 숫자들은 함께 그 자체의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곧, 변경 지대를 뜻하는 라피아 이후 십 년이며, 평원에서 치러졌고 포위전으로 끝난 전투였던 파니움 이전 칠 년이다. 열과 일곱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여러 증인 위에 용의 권세를 드러낸다. 기원전 207년은 땅의 짐승의 상징인 트럼프를 다니엘 11장 11절과 15절 사이에 두어, 열과 일곱이라는 수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예언적으로 용처럼 말하도록 준비시킨다.

열일곱 또한 상징적이며, 그것은 라피아에서 파니움에 이르는 역사를 파니움을 넘어서는 곳까지, 또한 라피아 이전까지도 확장한다.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는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4년까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의 왕으로 통치하였으며, 기원전 217년 라피아에서 안티오크스 마그누스를 격파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라피아 이전에 통치를 시작하였고, 그는 '열일곱' 해 동안 통치하였다. 열일곱이라는 수는 라피아 이전에 시작하여, 파니움 전투와 시돈 포위를 넘어 330년으로 표상된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마치는 때까지 확장되는 역사적 기간을 나타낸다. 서머나 교회 시대의 250년 예언은 64년에 시작하여 313년의 밀라노 칙령과 혼인 조약에서 끝났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버가모 교회의 역사를 대표하며, 그 역사는 313년에 시작되어 538년에 끝났다. 313년에 이백오십 년 예언이 종결된 후 첫 '열일곱' 해에는 세 개의 이정표가 있다. 313년은 밀라노 칙령이었고, 321년은 최초의 일요일 법이었으며, 제국의 분열은 330년에 표지된다. 330년은 인간의 은혜의 시기의 종결을 표지하는 최종적인 일요일 법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열일곱이라는 수는 라피아 이전에 시작하여 파니움과 시돈의 군사 원정이 있는 훨씬 후에 끝난다. 다니엘 11장 16절은 미국의 일요일 법을

대표한다.

서머나 예언은 에스겔의 경고 기별의 바로 핵심인 포위의 표징을 밝혀 준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두 가지 표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요일 법령에 선행하는 이정표는 그 포위이지만,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의 형성을 시작하게 하는 밀라노 칙령이기도 하다.

포위의 때에 조약 결혼 행렬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496년의 클로비스로 예표된 바와 같이 레이건과 함께 시작된 결혼 행렬의 프랙털이지만, 결혼에 이르는 최종 행렬은 포위의 때에 시작되며, 이는 533년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 및 313년 밀라노 칙령과 일치한다. 이 두 이정표는 모두 일요일 법에 선행한다. 313년은 321년의 첫 번째 일요일 법에 선행하였고, 533년의 칙령은 538년 제3차 오를레앙 공의회에서의 일요일 법에 선행하였다. 어떤 형태의 입법이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과 밀라노 칙령 둘 다의 예언적 특성들을 성취할 것이며, 동시에 어떤 형태의 상징적인 조약 결혼이 시행될 것이다.

그 칙령이 내려질 때에는 준비하기에 이미 너무 늦다. 이는 유예의 문이 이집트의 첫 번째 유월절 때 닫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신교의 뿔 위에도 확실히 닫히기 때문이다. 그 후에 일요일 법, 곧 다음 이정표는 짐승의 우상이 완전히 형성되었다는 사실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의 강제 시행도 드러낸다. 일요일 법은 공화주의적 뿔, 곧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에게 유예의 끝을 표시하는데, 이는 유월절 후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서 죽은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주전 207년에 끝나는 그 이백오십 년은, 파니움 평원에서 시작되어 시돈 포위로 끝나는 다가오는 원정을 준비하는 안티오크스 마그누스로 표상된 도널드 트럼프를 식별한다. 파니움 전투 후, 프톨레마이오스 측 지휘관 아이톨리아의 스코파스는 살아남은 약 1만 명의 병력과 함께 시돈 성으로 도주하였다. 안티오크스는 그를 추격하여 시돈을 '포위'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 정부는 구원군을 보냈으나, 그것은 실패하였다. 기아에 직면한 스코파스는 그 성을 항복하였다. 안티오크스는 스코파스가 떠나도록 허락하였고, 스코파스는 후에 이집트로 돌아갔으며, 그곳에서 결국 반역과 횡령 혐의로 처형되었다. 시돈 포위는 파니움 이후 안티오크스의 코엘레-시리아 정복을 완결하였다.

화이트 자매는 우라이어 스미스의 저서 『다니엘과 계시』를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밝힌다. 스미스는 다니엘 11장 14절과 15절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안티오크스의 두 단계에 걸친 원정을 밝힌다.

이집트의 젊은 왕의 교육은 로마 원로원에 의해 M. Emilius Lepidus에게 맡겨졌고, 그는 그 궁정의 늙고 경험 많은 대신인 Aristomenes를 그의 후견인으로 임명하였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동맹한 두 왕, 곧 Philip과 Antiochus의 침공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당시 이집트인을 섬기고 있던 아이톨리아의 저명한 장군 스코파스를 그의 본국으로 파견하여 군대를 위한 증원병을 모집하게 하였다. 군대를 갖춘 후 그는 팔레스타인과 코엘레시리아로 진군하였고(안티오크스는 소아시아에서 아탈루스와 전쟁 중이었다), 온 유대를 이집트의 권세 아래 복속시켰다.

“이와 같이 사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구절의 성취를 위한 국면으로 이끌어졌다. 이는 안티오쿠스가 로마인들의 명령에 따라 아탈루스와의 전쟁을 중지하고, 곧바로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팔레스타인과 코일레시리아를 탈환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스코파스가 그를 저지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요단 강의 수원지 근처에서 두 군대가 맞붙었다. [파니움] 스코파스는 패배하여 시돈까지 추격당하였고, 그곳에서 엄중히 포위되었다. 이집트의 가장 유능한 장군 셋이 그들의 정예 병력과 함께 포위를 풀기 위해 파견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스코파스는, 수척하고도 형체 없는 기아의 유령 가운데서 자신이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적과 맞닥뜨리고, 목숨만은 건지는 불명예스러운 조건으로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만 명의 병사는 옷이 벗겨진 채 벌거벗은 몸으로 떠나도록 허락되었다. 여기에 북방 왕이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한 일이 있었으니, 시돈은 그 위치와 방어 시설 양면에서 당시 가장 강력한 성읍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방의 무력이 능히 맞서지 못한 일이 있었고, 또한 남방 왕이 택한 백성, 곧 스코파스와 그의 아이톨리아 군대도 실패한 일이 있었다.” Daniel and the Revelation, 257, 258.

기원전 207년에 끝나는 이백오십 년은 도널드 트럼프를 지목한다. 동서의 조약 결혼과 밀라노 칙령이 있었던 313년에 끝나는 이백오십 년 예언은 미국에서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을 지목하고 있다. 313년에 시작된 버가모 교회는, 교황권이 보좌를 차지하기에 앞서 기독교가 이교의 종교와의 타협을 통해 배도한 역사를 나타낸다. 버가모와 313년은 미국에서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표상되는 타협을 예표한다. 그것은 기독교와 교황 로마의 타협을 나타내니, 가톨릭교라는 종교는 다름 아닌, 또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기독교 제도로 위장한 이교이기 때문이다. 1776년에 시작되어 올해에 끝나는 이백오십 년 예언 또한 미국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이백오십 년 예언은 모두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의 어떤 예언적 측면을 다루며, 셋 다 17이라는 숫자로 표상되는 예언적 계열 안에서 끝난다.

일요일 법령은 미국이 용처럼 말할 때이며, 한 나라의 말함이란 그 입법 및 사법 당국의 행위를 가리킨다.

“그 나라의 ‘말함’은 그 입법부와 사법 당국의 행위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2.

트럼프는 사법권도 입법권도 가진 권위가 아니므로, 임박한 일요일 법은 의회에 의해 성취된다. 그러나 교황권에 지지를 제공하는 어떠한 행위든지 일요일 법을 예표한다. 533년의 칙령과 313년의 칙서는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기간의 시작을 가리킨다. 그 결말은 임박한 일요일 법이며, 예수께서는 언제나 시작으로써 끝을 예증하시므로,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양보”를 제공하는 행정명령을 통한 트럼프의 행위는, 오직 미국이 “자국 정부의 원칙들을 것처럼 저버려 일요일 법을 제정하게” 되는 때, 곧 오메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끝나는 그 운동의 알파를 나타낼 것이다.

“일요일 강제를 위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조치에 뒤따를 결과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자유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성경의 안식일이 요구하는 바와, 일요일 제도가 의지하고 있는 거짓된 기초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종교 입법을 지지하는 어떤 운동이든, 그것은 실상 오랜 세월 동안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 온 교황권에 대한 양보의 행위이다. 일요일 준수는 이른바 그리스도교 제도로써 '불법의 비밀'에 그 존재를 빚지고 있으며, 그것의 강제는 로마주의의 바로 초석을 이루는 원칙들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가 일요일 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정부의 원칙들을 이처럼 스스로 저버리게 될 때, 개신교는 이 행위로 교황주의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시금 활동적인 전제정치로 뛰어오를 기회를 오랫동안 열렬히 엿보아 온 그 폭정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될 것이다." 『교회증언』 제5권, 711쪽.

"종교 입법을 지지하는 모든 '운동은 실제로 교황권에 대한 양보의 행위'이며," 그러한 운동들은 임박한 일요일 법에 앞서 일어난다.

"이 날의 경배를 강요하는 법령은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다. 제한된 정도로나마 그것은 이미 선포되었다. 여러 곳에서 시민 권력이, 이교의 왕이 히브리 포로들에게 말하였던 것과 꼭 같이, 용의 음성으로 말하고 있다." Signs of the Times, May 6, 1897.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다룰 것이다.